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8월 28일(주일) 제1407호



사진은 지난 2019년 하비스트.

하비스트 2022 'The Only Way!'

9월 10~11일 안산M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등지에서 온 이주민 4백여 명 참석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5).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낸다.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하비스트) 2022' (이하 하비스트)가 오는 9월 10일(토)과 11일(주일) 안산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The Only Way'를 주제로 막 오른다.

이번 하비스트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비스트를 개최했다. 올해 하비스트에는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비스트 실행을 온누리M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올해 하비스트도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0일(토) 저녁 집회, 11일(일) 연합예배와 페스티벌(자선장) 등이 이어진다. 김홍주 목사

(2000선교본부장)와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토대로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하비스트를 위한 봉사자 40명을 모집한다. 이를 동안 방송 미디어, 어린이사역, 주방, 의료, 통역, 접수, 미화, 게임 진행, 숙소 세팅을 섬겨줄 성도(성인, 어린이)면 된다. 물품 후원도 받고 있다. 집회 이틀째인 11일 오후 열리는 페스티벌(자선장)에서 사용할 물품이다. 자선장 수익금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몽골 어린이 '아나

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쓰인다.

문의: 자원봉사자 010-8901-8958

물품 후원 010-9418-191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9월 14~11월 30일, 만 70세 이상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노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삶과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이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신청은 개강일(9월 14일)에 현장(양재 드림홀)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10-8989-3473

한국 교회 청년연합기도회 'Build Up'

유스원크라이가 주최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교회 청년연합기도회'가 9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오후 7시 30분 'Build Up'을 주제로 막 오른다. 9월 5일 중앙감리교회, 6-8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집회 실황은 유스원크라이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문의: 010-5768-2223

바이블킹 주인공은 누구일까?

CGNTV 성경암송퀴즈쇼 9월 6일 결선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결선이 9월 6일(화) 치러진다. 바이블킹 주인공을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바이블킹 주인공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를, 바이블킹 주인공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양육지원금 500만 원을 준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는 바이블킹 결선을 앞두고 시청자 이벤트를 한다. 바이블킹 주인공 맞히기 이벤트는 9월 5일(월)까지 바이블킹으로 예상되는 도전자의 이름을 기독교 OTT '풍당'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면 된다. 이벤트 기간 내 1일 1회까지 참가할 수 있다. 결선 진출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궁금한 점 등을 함께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 김영선 기자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성도와 교회에 '감사의 쌀' 전달

온누리교회가 이웃 그리고 농어촌교회와 함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에게 '감사의 쌀'을 전달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각 순에서 오는 9월 25일(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 6만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봉헌하고, 공동체 담당목회자와 대표 장로는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해 목회지원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외부 단체와 개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사회선교본부에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사회선교부에서는 10월 말부터 온누리교회 각 순에서 봉헌한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으로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 한 포대(20kg)를 구매해서 대상자들에게 배송한다.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 이웃, 포항 시민 등 2,358곳에 쌀을 나눴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 11:7)

창세기가 실제 역사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벨탑 사건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기록도 믿지 못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인류가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연구해 발표했다.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여러 인종이 사실상 한 가족이라는 것도 생명과학이 증거하고 있다.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지 않고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한 것이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 등이 달라지면서 언어가 다양해진 것도 있지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들이 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인류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가족인 인류가 전혀 다른 구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일

으킨 바벨탑 사건이 있어야만 완벽하게 풀리게 된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바벨 지역에서 성과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헤어지게 하셨다.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모두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영어,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어는 배워서 익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배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게 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언어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배우고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절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처음 언어가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벨탑

사건 당시에는 가족 또는 종족 단위로 다양한 언어를 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사랑하고, 희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창조해 주셨다. 당연히 사람에게는 동물들과 달리 정교한 언어를 발성할 수 있는 세밀한 발성 기관을 주셨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면 언어도 타락한다. 필립 안시는 자신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수많은 단어가 본래의 뜻을 잃고 타락했다고 말했다. ‘사랑, 남자와 여자, 권위, 정의, 자유, 과학, 창조’ 등 많은 단어가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이해되고 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타락한 단어들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다양한 외국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언어와 피부색이 아무리 달라도 인류가 모두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질병, 억압 등은 바로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땅끝까지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중보 기도

8월 29일~ 9월 4일
창세기 16:1~19:22



묵상포인트 1: 인내와 기다림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 그러나 아브람(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획은 그 결과가 선하지 않다. 자녀

문제에서 아브람의 우유부단함, 사래와 하갈의 갈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묵상하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사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한다. 예상과 달리 임신한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되자 사래는 아브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갈을 학대해 도망하게 한다. 사래의 인간적 계획은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을 가져왔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 여주인 사래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한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과 유사하다. 사래에게 돌아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다.

묵상포인트 2: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존재 의미와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다. 약속 성취의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의 표징을 남자의 몸에 새기게 하신다. 개명과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묵상하자.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신다. 그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의 후손과 세우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를 몸에 두는 ‘할례’를 명하신다. 이방인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여왕,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 주신다. 90세의 늙은 사래가 출산한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는다. 하나님은 아들 이름을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 하라고 하신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특별한 호의를 입는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세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며 대접한다. 내년 이맘때 아들

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사래가 웃음으로 불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거듭 확인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 주신다. 아브라함은 롯을 염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확답을 받는다.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당도하자 롯이 그들을 극진히 환대한다. 한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두 이방인을 끌어내라고 위협한다. 위기 상황에서 두 천사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에게 자신들이 온 이유를 알린다.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과 뒤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내가 믿음으로 더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 조급함과 인간적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며 롯이 거하는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위기에 처한 동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부지중에 천사를 환대한 아브라함과 롯은 특별한 호의를 입었다.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숙제인 듯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처가 쪽은 둘째 처남 가족과 셋째 처남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 가정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처남 가족은 유독 미신에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처남 또한 믿음에 견고한 콘크리트 성벽을 세우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둘째 처남과 셋째 처남 가정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처남과 셋째 처남 가정의 예수님을 믿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둘째 처남과 셋째 처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서 평안과 영생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옵소서.

/ 강명원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1절).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2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을 가리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고 6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단어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하였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는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더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가 왕 노릇을 하는 상태에서 생명이 왕 노릇을 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논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8~1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3~7절),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2절)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

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더는 죄가 그분께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어떠한 시험도, 죄도, 사탄의 공격도, 그분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3~4절).

성경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

둘째,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

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5~7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심판의 사건입니다. 아담에 대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옛사람에 대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처형되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제거하려 할수록 더 강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실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옛사람이 심판받아 처형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8~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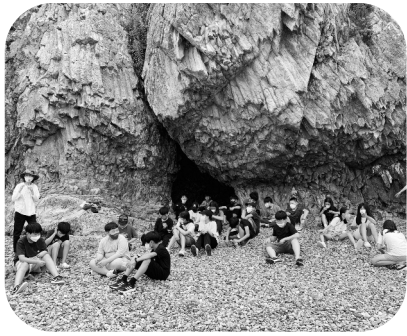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죄가 더는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더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나누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효과가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11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논리화되고, 개념화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되새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고,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승리,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꿈땅 소속 차세대가 '창조탐험대'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탐험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탐험!

차세대 창조탐험대, 마이산, 덕유산, 채석강, 새만금 탐험

지난 8월 14일(일)과 15일(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 소속 차세대 50여 명이 '창조탐험대(창조과학선교팀, 창조과학회, 차세대 공동 주최)'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했어요. 전북 마이산에서 역암층과 수직절벽을 살펴보고, 덕유산에서는 계곡지형과 생태, 부안 채석강에서는 편마암 지층을 보면서 재미나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어요. 신나고 즐거웠던 창조탐험대 이야기를 안민호 학생(양재 꿈땅, 초6), 임승규 학생(양재 꿈땅, 초5), 정하영 학생(서빙고 꿈땅, 초6), 최성율 학생(서빙고 꿈땅, 초5)이 들려줬어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직접 만드셨다고 믿고 있나요? 정말 이 땅에 공룡이 살았고, 온 세상이 잠길 만큼 많은 비가 내렸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믿나요? 사실 창조탐험대 친구들도 이번 여행 전에는 창조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다고 해요.

안민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었어요.

임승규: 천지창조, 대홍수, 공룡 등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진짜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었어요.

정하영: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와 성경 말씀으로 창조를 배우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최성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창조탐험대는 마이산, 덕유산, 채석강, 새만금 등지를 탐험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비밀이 숨겨진 자연을 살펴보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안민호: 마이산을 오르면서 들었던 강의가 기억에 남아요. 지층이 쌓이는 흔적을 보여주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몇천 년 동안 천천히 쌓인 거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홍수로 인해 한 번에 형성된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임승규: 새만금을 탐방하면서 친구들과 토론했던 시간이 생각나요.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사이좋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하영: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들었던 하주현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아요.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창세기에 적힌 홍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셨어요. 또 현대 사람들이 성경 속 인물들처럼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해주셨어요. 여러 지식과 추억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최성율: 탐험 중간중간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됐어요. 공룡과 사람이 정말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온 세상이 잠길 만큼 비가 내렸던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배우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 한 것도 정말 좋았어요.

창조탐험대 친구들이 창조탐험을 마치고 '청지기'로서 살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리기로 했어요. 친구들의 다짐을 들어볼까요?

안민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에덴동산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거예요.

임승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과 진화론자들이 "성경은 가짜야"라고 말할 때, 창조탐험대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 있게 "성경은 진짜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하영: 창조탐험대에서 여러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창조와 대홍수에 대해 배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최성율: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내리실까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최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거예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8월 22일
본문(창세기 12장 1~7절)

1.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며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축복하셨어요. 아브람이 받은 명령은 무엇일까요?

- ① 고향을 떠나는 것 ② 우물을 파는 것
③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④ 교회를 짓는 것

2.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 ① 77세 ② 99세 ③ 75세 ④ 105세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7. 가족옷을 지어 입히었어요



우리들 작품

위로의 하나님

2022.7.7.목		
본문	고린도후서 1:1-5	
주제	위로의 하나님!	
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	하나님이 나를 힘들 때 위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요.	

하나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세요. 친구들과 다녔을 때, 부모님께 혼났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등 혼자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세요.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도 하나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래요.

/ 한해니 학생(강동온누리교회 꿈땅)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자폐증 낙인의 심리학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
예술 과정 주임교수)

신생 채널 ‘ENA’에서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공전절후(空前絶後)의 인기몰이 끝에 대관원의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새내기 변호사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

“사람들은 나와 너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지만, 자폐인은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 데 익숙합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의 이 말처럼 자폐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산다. 교류의 핵심인 타인과 눈 맞춤도 없고, 혼자 지내려고 한다.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관심이 많다. 자폐인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는지 헤아리는 데 관심이 없다. 우영우도 대화 중이나 법정에서 변론할 때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 눈을 내리깔고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기본인 언어에도 장애가 있다. 말을 하는 목적도 타인과의 교류보다 자신의 요구 표현인 경우가 많다. 언어능력이 있더라도 단조로운 어조, 고음의 소리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자주 쓴다.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똑같은 것만 고집한다. 우영우가 드라마에서 삼시 세끼를 김밥만 고집하거나 타인이 관심을 가지면 말쑥 일방적으로 ‘고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처럼 말이다. 배우 조승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말아톤’ (2005년)에서 주인공 윤초원에게 쫓힌 대상은 ‘얼룩말’이다.

자폐인은 대개 지능장애를 갖고 있다. 대략 자폐인의 70~85%가 지적장애를 동반한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암기나 계산, 음악, 미술 등 특정한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폐 성향을 지녔지만, 지적인 능력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고기능 자폐장애’라고 부른다. 우영우가 ‘고기능 자폐장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자폐인들의 예후는 좋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왜 이리 인기가 있었을까?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출연진의 연기가 뛰어나서일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드라마가 사람들이 자폐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폐인과는 다르다. 그녀는 사회적인 교류의 방식이나 내용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와 완전히 동격의 사람이다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 다소 어색하고 서툴기는 하지만, 자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우영우의 모습은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성장해나가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자폐인이 저렇게 능력이 있고, 게다가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겸비하다니...’

아마 시청자들의 속내는 이랬을 것이다.

자폐증에 대한 낙인 대신 따뜻한 시선과 공허한 마음으로

과연 그뿐일까? 고기능 자폐장애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청자들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대다수 자폐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하기 어렵다. 그들이 갖는 수치심이나 고립감은 다른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 반응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자폐인들은 어릴 때부터 조롱과 멸시, 따돌

림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을 ‘자폐증 낙인 (autism stigma)’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폐 아동들의 75%가 또래 집단의 활동에서 소외되고, 13%가 따돌림을 당하며, 37%가 조롱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자폐인의 특성에 따른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 예컨대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살갓을 핥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의 행동이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드라마 속 우영우는 ‘이상한 변호사’가 맞다.

드라마가 판타지 같다는 소리도 있다.

“우영우의 성공에 시청자들이 환호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폐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힐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영우와 같은 고기능 자폐인들뿐만 아니라 영화 ‘말아톤’의 윤초원과 같은 대다수 자폐인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공

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를 뿐!

구약 요나서에 등장하는 고래는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인 선지자 요나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반면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는 바다의 상징이다. 드넓은 대양을 유영하는 고래는 창의성의 자유로운 사용을 상징한다. 윤초원이 좋아하는 얼룩말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내달리는 자유의 상징이다. 초원을 떠난 얼룩말, 바다를 떠난 고래는 상상하기도 싫다.

우리가 한 명의 우영우에 대한 찬사를 아낄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99명의 윤초원에 대한 관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영우가 대양을 가르느 고래처럼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윤초원이 초원을 내달리는 자유를 구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자폐인도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다를 뿐(different, not less)’ 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장애를 개인의 비극이나 죄의 결과로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진 크리스천은 없으리라 믿는다. 장애인을 사회적인 약자로서 교회 차원에서 돌봐야 할 대상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심(虛心)하게 돌아볼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시 145:9).

장애인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와 완전히 동격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출 4:11).

이 드라마 마지막회에서 우영우가 이렇게 말한다.

“길 잃은 외뿔고래가 낚선 바다에서 낚선 흰 고래 무리에 속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외뿔고래와 같습니다.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 윤초원이나 우영우의 인생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란 점에서 똑같은 인생이다.

대전 꿈이자라는땅
전라남도 광주 아웃리치

대전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 1부(이하 대전 꿈땅)에서는 어드벤처와 선교 아웃리치를 함께 진행했다. 대전 꿈땅은 7월 초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어드벤처의 그 마지막을 장식한 부서이다. 다른 캠퍼스 차세대 부서들이 하루 또는 1박 2일로 어드벤처를 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대전 꿈땅은 3주 동안(8월 7일, 14일, 21일) 주일에배 소그룹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먹고 마셨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선교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광주를 다녀왔다. 수많은 지역 중에서 광주로 선교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유는 올해 온누리교회 차세대 어드벤처의 주제였던 ‘예수님의 이야기: 소금과 빛’에 걸맞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광주에 ‘양림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120년 전 미국남장로교 소속 유진벨 선교사가 광주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마을이다. 유진벨 선교사 이후 오웬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 윌슨 선교사, 웨빙(서서평) 선교사 등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광주 양림동에서 사역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설립했다. 배우지 못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며,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짙은 가난에 갇힌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생명의 빛으로 다가왔다. 조선 사람들에게 치료와 배움,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광주지역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최흥종 목사에게 이어졌다. 최흥종牧사는 광주지



대전 꿈땅 차세대들이 선교사 묘지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역에서 ‘망치’로 불렸던 사람이다. 건달패 두목이었던 그는 장날만 되면 상인들의 돈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 그랬던 그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한센병을 앓는 이들을 극진히 보살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던 한

센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거처를 마련해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다. 또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흥종 목사는 그의 다짐대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다.

대전 꿈땅의 선교 아웃리치에서는 광주 양림동에 있는 유진벨선교기념관과 오방최흥종기념관을 찾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선교사들을 만났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다!

차세대들은 유진벨 선교사와 최흥종 목사 기념관에서 신앙 선배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호남신학대학교 뒤편 언덕을 올라 그곳에 있는 선교사 묘지도 정리했다. 준비해간 장갑을 끼고, 높이 자란 풀들을 뽑고, 선교사 묘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선교사들의 무덤에 꽃 한 송이씩 꽂아드리며 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차세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선교 아웃리치에 참가했던 차세대 몇 명의 소감을 나누며 글을 마친다.

“많이 걷고, 비가 오고, 또 모기도 많이 물려서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애쓰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풀을 뽑고 청소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김강건)

“선교사님의 묘지를 청소하는데 비가 와서 더 많이 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반지호)

“맛있는 ‘선교사 밥상’을 먹어서 좋았어요. 모기는 싫어요”(이예준)

“기념관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기차도 타고, 선교사 묘지도 가고 다 좋았어요. 또 오고 싶어요!”(한지우)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강남E공동체

강화임마누엘농아인교회 아웃리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가는 아웃리치라 기대가 되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다. 거기다 나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아웃리치를 가야 했기에 늦게 합류하는 것 또한 죄송했다.

강화도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들어간 강당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웃리치 팀원들이 하나 되어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소리 높여 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싶었다. 마치 여고생 시절에 갔던 여름 수련회 때처럼 말이다. 그만큼 좋았다.

이기복 목사님과 함께 한 영성기도회도 잊을 수가 없다. 주님을 묵이 쉬게 불러본 지가 얼마 만인지... 영성기도회에서 목사님의 기도 인도에 따라 부르짖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게 절실한 그 문제,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새 힘을 얻었다. 남편, 딸, 사위, 아들과 이제 곧 우리에



강남E공동체가 강화임마누엘농아인교회에서 수화로 찬양을 하고 있다.

게 올 손자의 구원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할 수화 찬양과 찬양 연습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서 누가 될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김정순 권사님이 잘못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

는 말씀에 용기를 냈다. 아웃리치가 진행되는 강화임마누엘농아인교회에 가는 삼십 분 동안 우리는 열심히 가사를 외우고, 수화연습을 했다. 그렇게 수화 찬양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있었다. 강화임마누

엘농아인교회에서 수화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앉은 청각장애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위로해야 하는 언니고, 여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눈물이 났다. 다른 공동체 식구들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이 참 순하고, 깨끗하고, 어여쁜 주님의 딸들이라고 느껴져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청각장애인 자매를 찾아가 꼭 안아 주었다.

예전에는 아웃리치 가면 봉사와 친교만 했었는데,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찬양과 영성기도회를 한 것이 특별했다. 그 특별한 경험에 내 영을 새롭게 했다.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가는 새 힘을 얻었다.

그 힘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딸로 살아갈 것이다. 이번 강남E공동체 강화임마누엘농아인교회 아웃리치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내년 아웃리치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



이향선 안수집사
(강남E공동체)

내 영을 새롭게!



지난 8월 14일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 세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 3년 만의 연합세례식

7개국에서 온 이주민 21명 세례 받아

온누리M미션이 3년 만에 연합세례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주일) 안산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린 연합세례식에서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등 7개국에서 온 이주민 21명(유아세례 2명, 성인세례 19명)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이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연합세례식을 개최하지 못했다.

이날 백은혜 자매(중국)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랑과 복음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고, 게릴레 자매(몽골)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고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세례 간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 없는 삶보다 훨씬 낫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다.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혼자 지냈다. 영적 어둠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친구의 초대로 2016년 9월 온누리M미션 필리핀예배공동체에 왔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했다. 예배드리는 내내 행복과 사랑을 느꼈다. 그날 예배에서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 말씀을 읽고 그제야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이다. 내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리는 영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한 지 7년이 되어간다. 그 시간 동안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필리핀예배공동체는 나에게 제2의 집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 없는 삶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할 수 있다.

/ 카렌 조이 펙슨 자매(필리핀예배)

성서지리 구역반 14기 개강

구역 성경을 역사와 지도, 사진 등과 함께 살펴보면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서지리 구역반 14기’ 온라인 세미나가 9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국내 1호 성서지리 박사이자 성서지리 최고전문가 이문범 교수(충신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성경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6만 원이다. 8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75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과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재미있고 쉽게 풀이해주고, 한 주 묵상할 큐티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

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격주로 게재 중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

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9월 13일 개강

매주 화 오후 8시 Zoom, 이기훈, 김숙경 강의

하반기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9월 13일(화)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및 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큐티’,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이 ‘가족’을 주제로 강의한다. 여성민 목사와 이준

인 목사(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는 ‘〈생명의 삶〉 묵상 말씀 나눔’을 주제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21년 5월 시작됐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는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성도 등에게 온라인으로 영적 돌봄을 제공한다.

문의: 02-3215-3214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래요!”

차세대 어드벤처 및 여름 캠프 종료

지난 7월 초부터 진행된 차세대 여름사역 ‘어드벤처’와 ‘여름 캠프’가 막을 내렸다. 올해 차세대 여름사역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곡과 꿈땅의 어드벤처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파워웨이브 여름캠프 ‘나는 다르게

산다’가 이어졌다.

이번 여름사역에서 국내 10개 캠퍼스 104개 부서 소속 차세대들은 마태복음 5장 13~14절을 주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다.

/ 홍하영 기자

2023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20일 화 오후 7시 양재 두란노홀

2023년 상반기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오는 9월 20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지하 1층)에서 추첨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할 수 있다. 단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

50만 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예비신랑, 신부가 타 교회 교인일 경우 소속 교회의 ‘교회 확인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결혼예배 예약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원하는 결혼예배 날짜를 미리 2~3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결혼예배 추천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다.

문의: 02-570-7505

내가 한국어 선교사!

한국어선교학교 8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 한국어보다 좋은 선교도구가 없다. 한국어선교학교 10기에서 누구나 한국어로 선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어선교학교 10기에서는 한국

어 교수법, 한국어선교의 실제,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8월 2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3290-4506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9월 18일~11월 15일 매주 화요일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2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한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목요일 오후(온라인)

나 주일 오전(오프라인) 중에 하루를 선택해 조별모임을 한다.

참가신청은 9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및 전도지 제공).

문의: 010-9701-9754

